



고희 앞두고 기도를 담은 고향 노래



제주 소재 곡 등으로 일곱 번째 창작가곡 발표회를 여는 강문철 작곡가.

강문철 창작가곡 발표회 제주 소재 등 17곡 선사 바리톤 김승철 등 출연

창작, 음악평론, 합창 지휘 등 제주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써온 강문철(사진) 작곡가. 어느덧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는 그가 창작곡을 나누며 음악에 대한 식지않은 열정을 그려낸다. 이달 30일 오후 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그의 일곱 번째 창작가곡 발표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제주에 대한 예찬과 신앙적 삶을 노랫말로 쓴 가곡이 불려진다. 무대에 올리는 창작곡은 17곡에 이른다. 김춘수의 '꽃', 박두진의 '하늘', 한기팔의 '불을 지피며', 김순이의 '역세의 노래', 김광섭의 '저녁에', 김소월의 '가는 길', 정건영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시인과 제주 중진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였다. 강문철 작곡가가 시로 쓴 '꽃들과 함께', '나의 기도', '고향의 노래', '그리운 고향' 등도 가곡으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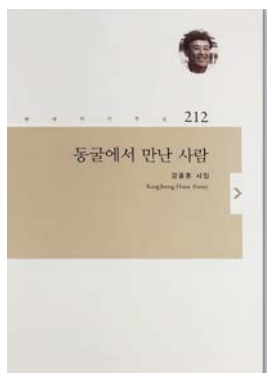
이들 노래는 제주 출신인 바리톤 김승철(계명대 교수)을 비롯 소프라노 류진교와 김은주, 테너 강현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피아노는 이금춘·이지연씨가 맡는다. 강 작곡가는 제주도문화상 수상자로 제주관광대 교수, 제주예총 회장, 제주음악협회 회장, 한국합창연합회 제주도지회장 등을 지냈다. 창작가곡집 두 권을 냈고 제주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동안 뮤지컬 '자청비'를 작곡했다. 그가 만든 합창곡만 100곡이 넘는다. 관람료 유료. 문의 010-3699-8806. 전선희기자

반짝이는 모든 게 별이 아니라면

강중훈 일곱번째 시집 '동굴에서 만난...' 펴내 출간 기념 문학콘서트

그는 오조리 시인이다. '오조리, 오조리, 팍팍마을 오조리아'란 시집의 영향이 크다. 제주4·3이 이 땅에 드리운 고통을 시편에 담은 강중훈 시인이다. 일곱 번째 시집 '동굴에서 만난 사람'(현대시)에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 그 시절을 건너왔거나 비극에 얽힌 가족사가 있는 제주섬의 슬픈 이

들처럼 시인은 바다에서, 오름에서 절규를 듣는다. '혹여 있었다면 그대여, 울먹울먹한 저 앞바르터진목 파도소리 귀 기울여 보렴. 그 바위에 물속 먹은 우리 어명, 우리 누이의 숨비질 소리라도 들어보렴! 아니면 광치기 모래밭에 모질게 뿌리내려 피 토하듯 피어난 숨비꽃 구슬픈 사연이라도 들어보는 건 어떨겠나!'('소년에게' 중에서) 앞바르터진목은 그가 사는 곳과 가까운 성산일출봉 해안 모래밭을 일컫는 지명이다. 4·3 당시 그곳에서 400명 넘는 사람들이 집단학살됐다. 그 슬픔을 삭이고 삭여 시로 빚어온



시인은 그 처참한 사연이 잊힐까, 비틀어질까 저어하며 소년을 부른다. 시집 곳곳에 얼굴을 내미는 동굴과 별은 의미롭다. '이 세상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별은 아니다'('동굴 6')는 경우 같은 시어는 뒤이은 '진실게임'에서 또 한번 반복된다. 지금, 여기를 진실과 거짓이 마구 뒤엎

킨 곳이라고 보는 것일까. 시집 맨 앞을 채운 '무적(霧笛)'부터 그런 기운이 읽힌다. 시의 한 대목을 옮긴다. '보이지 않다가도 보이고 보이다가도 보이지 않은 그 게 섬인 거라, 그 게 바다인 거라, 그 게 사랑인 거라, 떠나려 해도 떠나지 못하는 이별인 거라, 고독인 거라, 아픈인 거라, 그 게 당신과 나인 거라.' 오늘날 제주가 뜨거운 개발 현안으로 반목하는 시기에 시인은 '우상(偶像)'이 연상되는 동굴을 표제로 내걸며 그에 답한 듯 보인다. 시집 출간을 기념해 이달 29일 오후 4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헤뜨는 집'에서 문학콘서트를 연다. 김순이 시인이 좌장을 맡고 오승철 시인과 변종태 시인이 대담한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지

제주문협 '제주문학' 발간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윤진)가 최근 '제주문학' 가을호(제80집)를 내놓았다. 이번 호는 지난 계절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름문학 창작교실을 특집으로 꾸몄다. 이 특집의 문학토크 콘서트는 '제주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이란 제목 아래 양민숙 시인의 진행으로 김영기 아동문학가, 양전형 시인, 김순신 수필가, 박미운 소설가가 나눈 진솔한 삶과 문학 이야기가 담겼다. 시, 시조, 아동문학, 수필 등 회원 작품 80여 편도 만날 수 있고 소설로는 박미운의 단편 '마중'이 실렸다. 문희주, 양상민, 허상문의 평론도 묶였다.

계간 '제주작가' 가을호

사단법인 제주작가회의(회장 이종형)가 내는 계간 '제주작가' 2019년 가을호(66호)는 '제주, '환상'을 겨누다'로 열린다. 환상을 겨누는 무기는 시(詩)다. 김경훈은 '토건의 꿈'에서 '이 예비된 공황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평화라고 했다. 김광렬은 '제주신공항'에서 '언젠가 제주는 목숨 줄 끊고 말리'라며 음울한 미래를 예언했다. 김규중, 김섬, 김신숙, 오광석, 오영호, 현택훈의 시편이 뒤이은다. 특집 '소설, 세상을 향한 시선'엔 김도균, 양혜영, 조미경, 차영민, 홍임정 등 젊은 소설가들의 작품을 실었다.

계간문예지 우수작품상

제주에서 나오는 계간문에 '다층' 가을호는 제7회 전국계간문예지 우수작품상을 특집으로 실었다. 특집에는 우수작품상과 해당 시인의 신작을 소개했다. 다층의 수상작은 석경호 시인의 '메롱 말때미'와 '부용'이다. "작디작은 일상의 소재를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시적 성취를 이룩하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젊은 시인 7인선, 젊은 시조시인 3인선도 앞장을 차지하고 있다. 다층 소설시집은 정령의 '봄맞이꽃' 등 5편으로 묶였다. 김효선의 산문 '시로 떠나는 제주풍경', 몽골의 시인 하다센두를 소개한 해외시단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제주펜 앤솔로지 16집

국제펜(PEN) 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회장 강방영)가 '제주펜 앤솔로지' 16집을 펴냈다. 이번 호는 제주4·3과 유사한 대만의 비극적인 역사인 2·28을 조명하고 그곳의 역사와 문화, 원주민의 가족 제도 등을 들여다보며 대만 문학을 살피는 특집을 썼다. 대만국립정치대학 대만문학연구소 최말순 교수의 '대만의 2·28 항쟁과 관련 소설의 역사화 양상', 송저라이(宋澤萊)의 소설 '남 뱀뿔나무 아래의 노파를 보았다' 두 편이다.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창작 결실을 담아낸 시·시조·동시, 수필, 동화, 소설도 만날 수 있다.

사랑의 열정 지나 폭풍치는 바다로

제주교향악단 정기공연 심희정 교수 협연 맡아

정인혁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이 오랜만에 제주에서 활동하는 연주자와 호흡을 맞춘다. 이달 29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149회 정기연주회로 제주대에 재직하는 피아니스트 심희정 교수가 협연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드뷔

시의 '바다'를 차례로 들려준다. 사랑의 열정과 고통이 지난 뒤 엄숙한 선율의 건반을 거쳐 폭풍치는 바다까지 다다른다. 바그너 곡은 오페라의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작품으로 주인공들의 사랑의 심리를 압축해 드러낸다. 모차르트를 협연하는 심희정 교수는 앙상블 데어 토니카 예술감독, 제주건반예술학회 회장 등으로 있다. 드뷔시의 '바다'는 일본의 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에서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 관람료 유료. 문의 064)728-2776-7. 전선희기자

축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 동 석

제35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서귀포시관광협의회**
회장 양 광 순 외 회원일동

축
수 상
올해의 아너소사이어티

김 진 옥
(돈마유통 대표)

올해의 아너소사이어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노형 로타리클럽
회장 양 문 봉 외 회원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마이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고재만의

제주의기암한판

<180>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곤는 말. "아으틸아 후롱스랑 봉황 이악 흥여주케메 오닐랑 뵈 마리레 오라. 나가 고팡 뿤이 지등에 핑 길인 놉뒤시난 쉼넨 모뿤 골곡, 핑 농곡 흥영 모뿤초메기나 멩글야 보라. 요지금은 모뿤 갈양 핑 뿤 흥민 춤말 맛 이실 거여. 하르바지가 고팡 우넉 뵈이 지등데레 걸어놓앗저." 쉼네 골넨, "에 하르바님 경훈디 나 핑 잡을 중 몰르느디마슴" 으멩이가 곱얏신게. "에 누님마슴! 핑 잡는 건 나신디 멩겍서. 나가 전이 흥넨 잡아놉수게. 고팡데레 갓당 와사쿠다. 지등에 걸어정 이신 핑이영 곱첵 7정 와사 흥넨게마슴. 쉼 물 백영 와뵈 핑 잡으케메 누님은 모뿤 슴을 쏘이나 준비호셔."

- * 제주어 풀이 *모뿤(뿤물, 뿤물, 모뿤, 모물) : <이름>메밀.
- *곱다 : <음직> 멩뿤 따위를 돌려서 가루를 만드다. 무거운 물체에 깔리어 형체가 부서지다. 갈다.
- *모뿤초메기(모뿤초메기, 모뿤초메기) : <어찌>메밀 수제비.
- *멩글다(멩글다, 멩글다) : <음직> 만드다. *곱얏신게 : 말하네.
- *멩겍서 : 말기세요. *전이(전의전의, 전이전적) : <어찌> 옛날에.
- *갓당 와사쿠다 : 갓다 와야했어요. *걸어정 이신 : 걸어 있는.
- *7정 와사 흥넨게마슴 : 가지고 와야했어요. *잡으케메 : 잡을 것이니.
- *모뿤 슴을 : 메밀 삶을. *쏘 : <이름>술.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음직>음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름>대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노>노씨(조사)/<대소>대소씨(의문말)/<의문말>의문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